

Hochschule für Künste Bremen (HfK)

23-1학기 교환학생 체험기

2019154009

미술이론과 정인혜(다검)

1. 도시 브레멘(Bremen)에 대하여

독일 북부에 위치한 도시 브레멘은 독일 최대의 항구 도시이자 제2의 대도시 함부르크(Hamburg), 니더작센(Niedersachsen)의 주도인 하노버(Hannover)와 밀접하게 위치하였으며, 항구도시로서 상업과 공업이 발달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임에도 소도시 같은 분위기의 자아내는 이상한 매력이 있으며, 비교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시입니다.

브레멘이 사용하고 있는 열쇠 형상의 시 문장은 프랑크 왕국이 게르만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건설한 이 지역의 주교좌 및 주교도시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브레멘 거점의 맥주회사 벡스(Becks) 또한 이 열쇠 형상이 들어간 브랜드 로고를 사용합니다.

2. 대학 생활

한예종이 이전의 안기부 건물을 사용하듯이 Hochschule für Künste Bremen_ Kunst und Design 건물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소 명칭 'Speicher(=창고)'에서 알 수 있듯이 배 운송 창고로 쓰였던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이에 건물 자체가 길고 segment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건물 앞에 물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분위기는 한예종과 비슷하나 전반적인 수업 분위기는 보다 자유롭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독일은 출석보다 크리틱 및 의견교환을 중시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하며, 가끔 함께 와인 혹은 차를 마시는 등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작업 아이디어화 프로세스 및 실험 과정 아카이빙을 스튜디오 벽에 진행하여 시각적인 마인드맵 조성을 유도한다는 자유로움이 있으며, 수업시간에 자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작업과 관련된 것을 한다면 자리를 비울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개별 피드백을 받는 경우도 많아 개인의 자율성 보장이 두드러집니다.

HfK에서는 타과 수업, 대학원생 Master 수업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필자는 Freie Kunst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다양한 관심 분야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예술대학은 공방 개념의 Werkstatt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이를 잘 활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Werkstatt에서 운영하는

워크숍(Workshop)은 강사가 정한 커리큘럼 하에 운영되는 것이 아닌 학생의 니즈에 따른 1:1 티칭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Werkstatt를 찾아가 작업에서 도움받고자 하는 부분을 질문하고 이에 대해 개별적인 티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면 정말 잘해주시니 꼭 예약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3. 기숙사

HfK에서 지원하는 기숙사는 Dresdener Straße 25에 위치한 시 기숙사입니다. 위치상 학교까지 버스로 약 20분 거리이며, 시내 또한 30분 이내로 걸립니다. 기숙사 바로 뒤쪽에는 큰 규모의 Brüger Park가 자리하여 조깅, 기분 환기에 최적입니다. 치안에 대한 걱정은 좀 더셔도 좋은 거주변부에 기숙사와 주택이 둘러싸고 있는 꽤 조용한 동네입니다.

기숙사 자체는 브레멘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HfK 학생들만 있지 않습니다. 활발한 커뮤니티가 있는 기숙사가 아니어서 생각보다 다른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우연히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충분히 재밌는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숙사는 2인 1실, 3인 1실 등 여러 옵션이 있는데, HfK International Office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는 대개 2인 1실인 듯합니다. 대신 국제처에 기숙사 신청한다고 빨리 말씀드리세요. 몇몇 교환학생 친구들은 기숙사를 못 구해 따로 방을 구해야 했습니다. 기숙사는 공용 부엌, 욕실, 각 방으로 이루어져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걱정은 더셔도 좋습니다. 국제처에서 아시아 학생들끼리 같은 방에 넣어주려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숙사 관리가 잘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화장실, 부엌에 묵은 때가 많더라도 놀라지 마시길 바라요. 원래는 학생들이 나가면 기숙사에서 청소업체를 불러 관리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 프로세스에 문제가 많은 듯합니다.

또 기숙사 학생들의 커뮤니티인 톡방은 초대 링크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에 기숙사에서 친구를 사귀면 기숙사 톡방에 초대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4. 교통

독일 대중교통의 경우 크게 기차(Zug), 트램(Tram), 버스(Bus), 지하철(U-Bahn), 광역전철(S-Bahn)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브레멘의 경우, 지하철은 없고, 택시 또한 찾아보기 힘들기에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독일은 사실상 대중교통 파업의 나라이기에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되어 있으므로 자전거를 학교에서 빌려 써보는 방법도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 다 방법이 있으니 괜찮아요 - 기숙사 톡방에 택시를 함께 탈 크루를 구하는 메시지가 올라오고는 하니, 친구 만들 겸 이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파업 관련은 인스타 @bsagbremen을 팔로우해 예의주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은 학생 복지가 잘되어 있는 축에 속합니다. 특히 교통 및 문화생활에 큰 특혜를 받을 수 있

는데, 먼저 교통의 경우 학교에서 제메스터 티켓(Semester Ticket)이 포함된 학생증을 줍니다. 이 카드가 있다면 브레멘 도시 내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long distance 기차의 경우, 니더작센주까지는 RB, RE 기차로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브레멘은 운이 좋은 게 꽤 넓은 지역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편입니다. 함부르크 거주 학생들은 함부르크 내에서만 제메스터 티켓의 혜택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지도를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기차 종류: ICE, IC, RB, RE 등)

학교에서 제공한 제메스터 티켓을 도이치란트 티켓(Deutschland ticket)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달에 16.60 유로씩만 내면 기차를 제외한 전국 모든 버스, 트램, 지하철, 광역전철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독일 내 여행계획이 많다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5. 문화생활 및 여행

문화생활_ 브레멘 내 뮤지엄은 학생증으로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오페라나 연극, 공연은 이용해보지는 않았으나 할인 혹은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EU국가에서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데, 학생 할인은 기본이고 특히 예술대학이면, 뮤지엄의 경우 입장료가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국제학생증보다 hfK 학생증을 더 자주 사용했습니다.

여행_ 독일은 위치적으로 여행을 다니기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다만 브레멘의 경우 북부에 위치해 있기에 남부 쪽으로 가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행은 교통비를 어떻게든 아끼시는 방법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교통비가 많이 나와 미리 계획하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티켓값이 쌀 때 미리 사두세요.

브레멘 공항은 브레멘 시내에서 약 1시간 거리라는 이점과 친절한 서비스라는 이점이 있지만, 함부르크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의 값이 훨씬 쌉니다. 함부르크나 하노버 공항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6. 추천 앱

(1) WhatsApp

(2) Telegram

(3) FahrPlaner

: 브레멘 지역의 교통수단 앱입니다. 독일은 지역마다 로컬이 쓰는 교통수단 앱이 따로 있는데, 브레멘은 FahrPlaner를 사용합니다.

(4) DB Navigator

: DB 독일철도회사 앱으로, 장거리 기차여행 시 온라인으로 티켓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5) ABOS IM VBN

: 저는 여기서 Semesterticket을 Deutschlandticket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DB를 통한 루트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6) FlixBus

: 기차 대신 값싼 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추천합니다.

(7) Omio

: 국경을 넘어다닐 때 Omio 플랫폼을 이용해 기차 정보를 얻고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7. 기타

(1) 독일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지만, 마트나 고객센터센터에서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겨 전화 통화를 할 시 영어보다 독일어로 얘기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 맛집 추천: Antica Napoli, Schüttinger Gasthausbrauerei

(3) 카페/바 추천: The Coffee Lab, Coffee Corner, Harbour Coffee, Kaffee Rösterei Hemken, Lift